

전남대, 교수-선·후배 서로 돕는 학습공동체 들여다 보니

이끌고... 따르고... '공부하는 대학' 만든다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학습 협약 프로그램이 대학교에 개설돼 주목받고 있다. 대학이 학업은 뒷전인 채 취업 준비의 과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들에겐 통하지 않는다.

전남대 교육발전연구원(원장 이지현·사범대 교육학과 교수)이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하! 학습공동체'가 학생과 교수 등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서로 멘토와 멘티가 돼 전공 공부를 서로 돕고 교수법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 초기 47개 그룹 270명이던 참가자가 3년이 채 못돼 800여개 그룹 4천여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자.

◇공부일촌=도량간 자발적 학습모임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과목 공부일촌'은 같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보다 더 깊숙히 공부하기 위해 모인다. '교과목 자유주제'는 공모전이나 국가자격증 준비 등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학부생들의 모임이고, '대학원생 공부일촌'은 대학원생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10주간 주 1회 2시간 이상 주제를 놓고 공부한 뒤 학습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학기 당 최소 2회는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교 측에서는 그룹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7회 이상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학생활동기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최근 열린 전남대 학습 프로그램 '아하! 학습공동체'의 '이웃고-교학상장' 성과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남대 교육발전연구원 제공)

멘토-멘티로 취업보다 교양·전공 학습 우선 '공부 일촌' 등 800개 그룹 4,000여명 스터디 교수·학부모도 참여... 지식경험 나누는 교육의 장

◇한울학습=선·후배간 상호작용을 통해 전공 교과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생-학부생, 학부 고학년생-저학년생으로 이뤄진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전공 공부를 했던 선배들은 이끄미(멘토)가 되고, 후배들은 따르미(멘티)가 돼 10주 동안 주 1회 2시간 이상 전공을 파고 든다.

그룹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대학원생 이끄미들은 30만원, 학부 고학년생 이끄미들은 20만원을 따로 지원받는다. 성과발표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그룹에는 '진리상', '창조상', '협동상' 등이 주어진다. 오지혜(20·정치외교학과 2년)씨는 "성과발표회에서 그룹 성과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 좋았

다"고 말했다.

◇이웃고-교학상장=신입생들의 대학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교내 모든 전임교수와 원하는 신입생이 대상이다. 교수 1명당 5명 내외로 그룹이 짜여진다. 2주에 1번 한 학기 동안 총 5회 이상 식사, 독서, 견학, 등산 등 교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갖는다. 그룹별 성과와 별도로 개인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특이한 것은 신입생의 부모들도 참가가 가능하다는 것.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의 그룹 '캠퍼스 숲 지킴이'에 참가, 장성축산물 탐방 등을 함께 한 학부모 안인숙(여·44·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이웃고를 통해 딸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직접 느끼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딸도 전공 과목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학습의욕이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나더더 나은 가르침을 위한 교수 공동체=학생 중심의 선진화된 교수법을 연구하기 위한 교수들의 모임이다. 전임교수간, 시간강사간, 전임과 시간강사간 3~5명씩으로 구성된다. 학기당 5회 이상 모임을 갖고, 대학교육정책, 전공 교과 내용, 중등교육, 취업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한 다양한 주제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전남대 교육발전연구원 박선희 연구원은 "여러 학기가 진행되면서 외연의 확장과 함께 내실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관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철저히 평가를 병행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산업 전문가 '첨단기술' 직접 가르친다

도교육청, 산학겸임교사 채용 전문계 고교 교육 접목

전남 전문계 고등학교에 산업현장의 전문가들이 교사로 활용돼 산업현장 신기술을 학교교육에 접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문계 고교에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통한 산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사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학겸임교사'는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에 산업현장의 신기술을 접목시켜 학생들의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산업수요의 변화에도

부응하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위촉해 활용하도록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도내 64곳의 전문계 고교 중 25개교에 112명의 현장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성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직업교육 특성화를 비롯해 산업수요의 변화에 따른 학과 개편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 교수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어 올해에도 26개교 전문계 고교가 산학겸임교사 위촉을 위한 신청을 해 이들에 대한 급여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을 해는 향만자동화 설비, 메카트로닉스, 금형제작, 광전자일반등 첨단 및 특성화된 전문교과에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적절히 안배할 계획이다.

'산학겸임교사'는 소정 학력이나 자격증, 또는 관련 대회 입상 실적을 가지고 관련분야 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명장으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학교장이 임용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캠퍼스 소식

호남대, 산업클러스터 육성 협약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광주단지혁신클러스터 협력을 위한 협약식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윤인모)은 최근 호남대 광산캠퍼스 황룡관에서 광주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산·학 협력 사업을 보다 긴밀히 추진키로 약속했다.

이들은 입주기업과 호남대의 산·학협력 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원기관협의회 및 포럼 구성, 운영 입주기업의 기술·경영·정보화 관련 문제점 해결, 호남대 재학생의 입주기업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인턴십, 보유 장비의 입주기업 활용 및 보유기술의 입주기업 이전 지원,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및 공동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교육과정 개발 교재개발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대, 총장 직속 인재개발원 신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총장 직속의 기구를 신설해 학생 취업을 제고에 나섰다.

지난 3일 문을 연 '호심인재개발원'(원장 오종진·이하 개발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파악 및 진로탐색에서부터 취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원 내 '취업진로지원센터'는 신입생에 대한 인·적성 검사, 10~15명 단위의 집단직업상담, 취업캠프 개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 탐색을 돕는다. 또 취업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다양한 온라인 취업특강 등으로 취업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학생상담건강센터'는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전문가와의 대화 시간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들이 진로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학업설계 및 진로계획을 세우는 '커리어맵 디자인', 성공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와 연계해 1대 1 교육을 받는 '커리어코칭' 등의 과정을 통해 커리어우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광주대는 최근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취업지원가능 확충 사업 지원' 학교로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매년 9천800만원씩 총 2억9천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조선대, 입학업무 전문화 등 조직 개편

조선대학교(총장 정오홍)가 조직 안정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1일자로 실시된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6처1부체제가 7처2부부체제로 바뀌고, 59개팀이 61개팀으로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무연구처에 속한 입학관리본부 가 입학처로 격상되고, 입학관리본부장이 입학부처장으로 명칭을 바꾼 것.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학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발을 맞춰 입학부무를 더욱 전문화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 교무연구처의 교무 업무와 연구 업무가 분리돼 교무처는 교무 업무를, 산학협력단이 연구처로 바뀌어 연구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또 산학기획팀은 산학협력팀, 산학지원팀은 연구진흥팀, 산학재무팀은 사업지원팀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됐다.

조선대는 지난해 11월 행정 조직개편 및 직원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몇 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러 새정부 출범 양국관계 발전 특강

오늘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단장 임재완)은 6일 오전 10시30분 전남대 사회대 별관 31강의실에서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의 A. 파노프

총장을 초청, '한-러 새정부 출범과 양국 관계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는 지난 1934년 외교 영사관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러시아 외무성 소속의 최상급 연구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

다. 그동안 6천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했으며 이중 500여명은 구 소련과 러시아 연방의 특명전권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남대 특강에 나선 파노프 총장은 주한 러시아 대사과 러시아 연방 외무성 차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 산하 국제교육원과 상호교류협정을 체결,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notices and ads. Key ads include: '신용대출' (Credit Loan) with contact 010-4400-0111; '금당부동산' (Geum-dang Real Estate) with contact 010-3388-2007; '부동산경제 전문인사' (Real Estate Economic Specialist); and '출판·不動産 리서치' (Publishing and Real Estate Research) with contact 010-3388-2007. There are also smaller notices for '레이저 지방흡입' (Laser Liposuction) and '미래의과' (Future Medicine).